종량제 봉투 아닌 비닐 봉투에 생선·야채찌꺼기 불법 반입 여전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10개월… 광주 남구 위생매립장 반입 실태 살펴보니

종량제 후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량 20% 늘어
벽돌·석면 등 폐기물 섞어 버리는 양심불량 투기도
감시원 이날만 236대 차량 중 17대 반입 금지 조치
광주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 지자체 선정 '무색'

28일 오전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송암·양과·효덕동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원10명 등 감시단원들 시선은 온통 매립장을 드나드는 차량에 쏠려 있었다.

광주 전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 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13년 하반기 성상조사' 라는 명칭으로 진행된다.

회원 10여명과 감시단원 5명은 새벽부터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악취와 메탄가스를 참아가며 쓰레기 반입 차량이 쏟아놓은 쓰레기를 갈고리로 뒤적이며 점검했다.

광역위생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만 하루 평균 3000t. 10여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뒤적여도 점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313번 차량 들어온다." 감시단원 누군가의 목소리에 전체 감시단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감시단원들 사이에서 불법 쓰레기 반입 '블랙 리스트' 에 올라 있는 차량이다. 서구 양동시장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차량인데, 다른 지역 쓰레기 수거 차량에 비해 유독 불법 쓰레기 반입이 잦다는 게 감시단원들 설명이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감시단원들이 반입된 쓰레기를 살폈더니, 예상대로 서구에서 제작한 쓰레기 봉투 대신 파란 비닐봉투에 쌓여 있는 야채 찌꺼기와 생선 머리 등 음식물 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반입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있는가 하면, 물기 가득한 음식물 쓰레기로 주변도 흥건하게 고였다. 최근 환경부 주관 '201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는 게 무색할 정도다.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최근 동구 소태동 매립장 운영이 종료된데다, 하루 평균 32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상무 소각장이 다음달 8일까지 정기 보수를 이유로 문을 닫은 뒤 반입 쓰레기 양이 부쩍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20만5000세대와 소형 음식점 2만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된 뒤 1년 가까이 됐지만 검은 비닐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다른 일반 쓰레기와 섞어 내다버리는 등 '양심 불량' 쓰레기 투기는 여전하다는 게 감시단원들 설명이다.

감시단원들은 이날 전체 쓰레기 반입 차량 236대 중 ▲이불과 장판 등 대형 폐기물 ▲벽돌·석면과 같은 사업장 폐기물 ▲음식물 포함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쓰레기 등을 싣고 들어온 차량 17대를 되돌려 보냈다.

그나마 주민 편의와 검사 형평성 등을 감안, '선처'했다는 게 단원들 설명이다. 최승진(68) 광주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일일이 쓰레기를 검사할 수도 없고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무조건 적발된 차량의 쓰레기 반입을 막을 수도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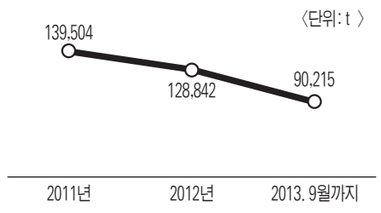
최 위원장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뒤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량이 20%가량 늘었다" 면서 "일단 시행하는데만 급급해 빚어지고 있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에는 안정행정부가 시범사업으로 132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 사업'을 확대,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공동주택 34만8155세대에 모두 적용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동구 3058세대 ▲서구 1만4820세대 ▲남구 1만5900세대 ▲북구 1만8256세대 ▲광산 5973세대 등 모두 5만8007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RFID 장비 850대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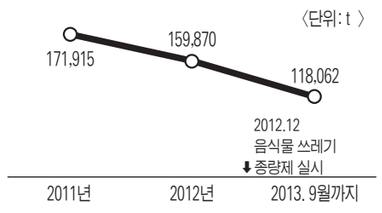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사업 확대와 함께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지도 및 홍보,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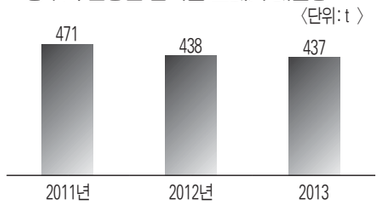
■ 광주시 쓰레기 매립량



■ 광주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 현황



■ 광주시 일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광주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원과 감시단원들이 28일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차량의 쓰레기 반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전남 철도역 12곳이 '석면 驛舍'

섬진강 기차마을 인근 곡성 등
1급 발암물질 검출
하루 평균 승객 1400여명 노출
민주 윤후덕 의원 석면자재 현황 공개

광주·전남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철도역이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이 검출된 철도역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하루 평균 1400여명에 달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29일 철도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석면 자재 139개 철도역사 현황 및 일일 평균 이용객'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12개 철도역에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철도역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이용객은 1386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석면을 포함해 세워진 철도역은 139곳에 달했다.

곡성역의 경우 광주·전남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았다. 섬진강 기차마을과 인접한 곡성역 하루 평균 이용객은 724명에 달하는 등 이용객들이 석면에 노출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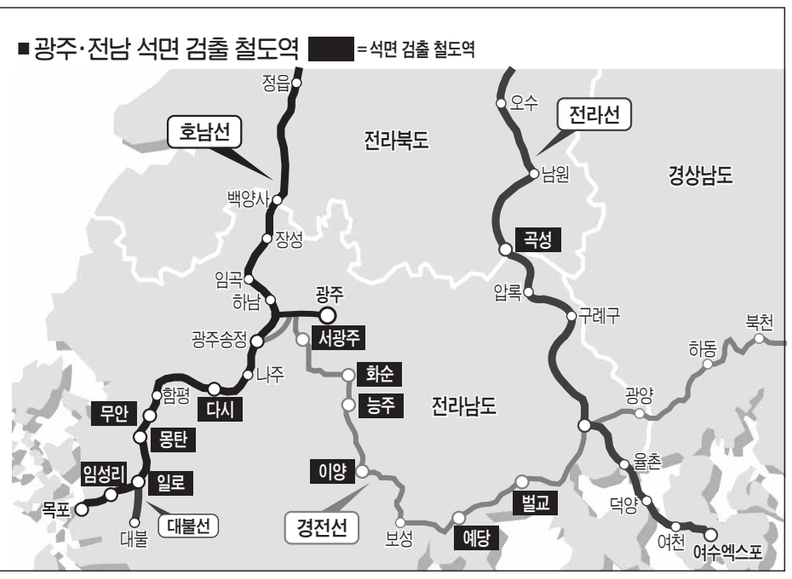
이외 일로(106명), 화순(106명), 벌교역(103명) 등 5곳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0명이 넘었고 광주를 통과하는 서광주역(85명), 보성 예당역(65명) 등의 순이었다.

전남지역 서남권을 잇는 무안(53명)~몽탄(43명)~일로 구간과 화순 탄광 개발에 맞춰 지어진 화순~능주(23명)~이양(29명) 등도 '석면 철도역'으로 조사됐다.

석면은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광주·전남 석면 검출 철도역 ■=석면 검출 철도역



수기동 제일OP 901호
▶ 분양 평수 53P
▶ 20층 건물중 9층 코너, 창가, 전망좋음
▶ 시세 – 1억 7000만원
▶ 매매가(일시불 조건) – 1억 2000만원

오피스텔 매매
주인 직매 H. 010-4667-9300

수기동 제일OP 2001호
▶ 분양 평수 77P
▶ 20층 건물중 20층 코너, 창가, 전망최고
▶ 시세 – 2억 5000만원
▶ 매매가(일시불 조건) – 2억 2000만원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사정상 "매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대지148P, 건물 480P, 신축건물
▶5층 건물(1층 82P, 2~5층 각100P)
▶감정가 / 시세 – 23억원
▶매매가 – 22억원 (일시불 조정가)
▶대 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이전비 – 없음(법인체 양도 양수)
▶주 소 – 순천시 왕지동 872-6번지
주인 직매 H. 010-4667-9300